

PREVIEW with INTERVIEW

오인환 개인전 <사각지대 찾기>
Inhwan Oh solo exhibition <Looking Out for Blind Spots>

전시기간 | 2014. 09. 04 목 - 09. 24 수
아티스트 토크 | 2014. 09. 17 수 6:00pm

* 이번 전시는 갤러리 팩토리과 함께 진행합니다. (www.factory483.org)



오인환 작가님은 국내에서 소위 '개념 미술 작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의 작품 세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작업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념 미술'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념 미술 작가'라기보다는 '개념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 정도라는 생각입니다. 제 작업과 개념 미술이 연결되는 점은 미술의 형식화, 상품화에 반대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년대 전후의 '개념 미술'이 미술 제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저는 문화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정체성, 가부장제, 집단주의 등의 문화적 이슈를 다루는 것이 제 작업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 작업은 문화비판적인 미술로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개념 미술을 비물질적으로 다루곤 하는데 작가님 경우의 설치 성격이 강한 작품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개념미술로서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념미술이 텍스트적인 방식이나, 비물질화 등 방법론에서 규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념미술은 형식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입장이 중요한 미술이라는 생각입니다. 입장의 미술을 위해 탈 형식화된 방식을 취한다는 점은 제 작업과 개념미술이 연결되는 지점이지만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의 탈 형식화 방식은 (기본적으로 형식화된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나의 형식을 반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작업이 특정한 형식으로 규정되는 형식화의 과정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탈 형식화의 실천은 문화비판적인 미술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이라는 생각입니다.

주로 '아이덴티티'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이슈는 제 작업 전반에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제 작업은 직접적으로 정체성을 다룬다기 보다는 정체성을 둘러싼 문화제도 혹은 일상적인 경험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이슈가 여성, 게이 등 소수자들만의 이슈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인전에서는 정체성과 관련된 일상과 문화제도가, 특히 한국적인 문맥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다 보편적인 현실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전시의 '문화적 사각지대'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의 문화는 특정한 문화적인 범위를 갖기 마련이고 이러한 범주 내의 문화현상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는 문화 현상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이지요. 이번 전시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화적 사각지대'란 지배적인 문화에서 제외된 새로운 문화의 출현 지점을 의미합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적 사각지대'들이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단일한 문화를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번 개인전에서 다양한 문화의 생산지로서 개인들이 창조할 수 있는 '문화적 사각지대'를 생각해 보길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쿼터 미술가로서 저의 역할이 이러한 '문화적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 형식 중 '상호 감상 체계'에 대해 기대하는 관람자들의 반응 혹은 태도가 있으신지요?

제 작업이 관람자들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람자들의 특정한 반응이나 태도를 미리 기대하거나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전시가 시작된 이후 관람자들이 제 작업에 대한 의견이나 반응을 경청해야 하겠죠.

추미림 개인전

Chu Mirim solo exhibition <POI (Point of Interest)>

전시기간 | 2014. 10. 01 수 - 10. 21 화
아티스트 토크 | 2014. 10. 16 목 6:00pm



주로 '픽셀'이라는 요소를 모든 작업의 소재로 사용하고 계신데, 이를 다루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대학에서 디자인과를 다니며 처음으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픽셀로 아이콘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에 들어가는 것들로 감정이나 사물을 표현한 것들이었죠. 사각형 가로세로 20px 안에서 사람의 표정이나 날씨, 기능 등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최소한의 픽셀을 사용하여 형상을 만드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픽셀(pixel: picture element에서 유래)은 컴퓨터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제 작업에서 보이는 픽셀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대한 사회, 온라인과 도시 속의 개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Pixel Space>라는 시리즈 작업을 통해서 표현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이루고 있는 기본단위나 반복되는 모듈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나 웹도 이런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방향으로 흐르는, 모든 것이 링크된,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풍경의 최소단위부터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이번 전시 <POI>를 통해서 도시적 감수성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픽셀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형태는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넓은 영역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오히려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위에도 언급했지만 작은 픽셀 하나로 다양한 모습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표현의 한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전시에서의 작품 소재는 웹 지도 프로그램에서 차용하고 있는데, 여러 종류의 지역 중에서도 도시 풍경에만 주목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어떤 풍경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가로등과 아파트 베란다의 창이 반복되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크고 높은 산도 아름답지만 건물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이나 빌딩의 사각형 불빛을 볼 때 더 큰 감동을 느낍니다. 제가 이런 풍경을 좋아하는 것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도시의 익숙한 풍경을 웹 지도 프로그램의 위성의 눈으로 보니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낯설지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평소에 보기 힘든 시점을 재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풍경과 자신의 기억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기억은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조각나고 다시 편집되어 추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흔히 추억은 아름답다고들 하지요. 저 역시 외국에서의 생활은 꽤 힘든 점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 보다는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도시의 모습도 가까이서 보면 시끄럽고 정리가 안된 부분도 많지만 인공위성으로 본 도시는 세계 남은 추억처럼 조용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로 바로 갈 수 없고 기억과 함께 존재하는 장소를 새로운 기술(웹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어떤 장소를 추억하는 새로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는 '픽셀'의 요소를 기존 작업과 다르게 다루고 있는 듯 한데 그 차이 점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 작업에서 보이는 도형의 형태는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수집되어 하드에 저장된 jpg를 확대하고 깨트려 만든 픽셀이었고 그것을 자유롭게 흩뿌려 정보가 흐르는 웹 공간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이번 작업의 도형의 형태와 배치는 실제 내가 살았던 장소들을 웹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낯선 시점(사람이 볼 수 없는 시점, 인공위성의 눈)으로 바라본 것을 바탕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저는 이 건물 윗면의 모습과 픽셀의 모양이 어딘가 닮아 있는 것에서 이전 작업과 현 작업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REVIEW with PHOTOS |

기획자 인큐베이팅 2014 <새벽질주>

Curator incubating program 2014 <riding at dawn>

기획자: 김민엽, 이한범, 장지한

작가: 문세린, 박지무, 신지영, 최윤, 최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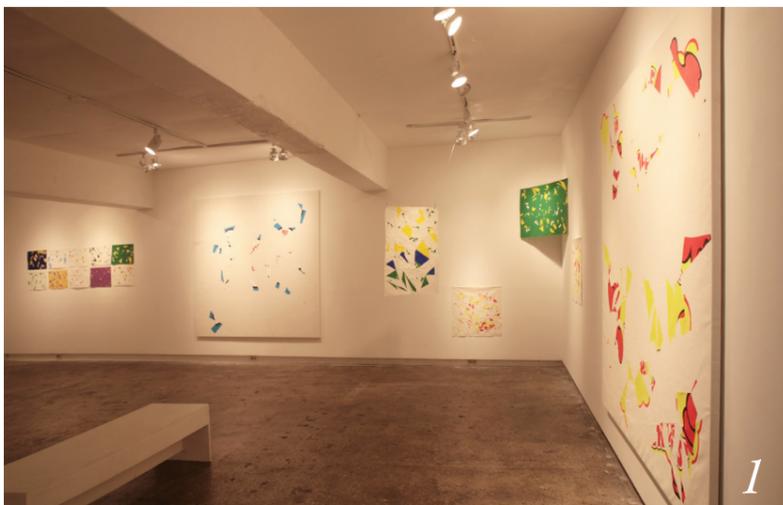
- 1 | 전시장 전경,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2 | 오프닝 리셉션 장면, 7월 30일
- 3 | 기획자 토크 장면, 8월 1일

제4회 PT&Critic

천창환 개인전

Chun, chang hwan solo exhibition <BURST>

2014. 7. 2 - 7. 20



- 1 | 전시장 전경,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2 | 오프닝 리셉션 장면, 7월 2일
- 3 | PT&Critic 장면, 7월 5일

강석호 작가 김연용 작가
천창환 작가

| EPILOGUE |



| SHORT-CUT NEW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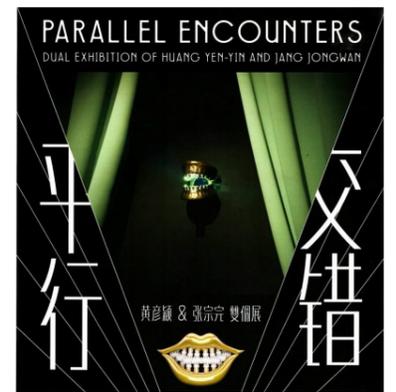
김수영 작가는 시민청 갤러리에서 열리는 <서울을 보다-두 번째 이야기_네 개의 문> 전시에 참여 합니다. 전시는 10.14~10.19까지

장민승 작가의 2012년 전시되었던 'the moments'의(One and J. Gallery) 연작을 상영(설치)+공연이 어울어진 퍼포먼스 형식으로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10.23~10.24 이틀동안 보여줍니다.



박성호 작가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군복무를 하며 영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각본·연출 했습니다. 독립영화 최초로 김광석의 음원이 정식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박경률 작가의 개인전 <3+tic>이 10.10~11.9까지 커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장종완 작가가 대만 타이페이 Art Issue Projects에서 대만 작가 Huang Yen-ying 과 전시 <Parallel Encounters>를 엽니다. 08.16~10.12 까지

구민정 작가가 9.26~10.5까지 열리는 문화 아카이브 봄의 가변크기(과거대 대학원 발행잡지) 단체전에 참여합니다.

| W&D NEWS |

이신애 코디네이터 부재 중 2013년도 초의 겨울에 근무하였던 김지원 인턴이 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생년 4개를 뽑은 박윤삼 코디네이터는 미모에 대한 집착을 더욱 심하게 드러냈다. 입안이 헐어도 몸매관리를 위해 악착같이 식사를 챙기는 중이다.

이신애 코디는 한달 동안의 여름 휴가를 과감하게 신청했다. 유럽 곳곳을 다니던 중 아이슬란드에서 '크롤'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한황수 인턴은 08.19~09.06 Fnart space에서 <Come up vol.3> 단체전을 가졌고 밤틀같은 헤이스타일로 변신하였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회가 신선한 양양으로 하계 워크샵을 다녀왔다.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작가들의 행방

진효숙 작가가 신사역 근처에 새 룰게 사무실을 오픈하였습니다. 주소는 논현동 16-40 금원빌딩 201호

윤병주 작가가 09.1~09.10 동안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을, 09.12~10.30 동안 송은아트큐브 선정작가전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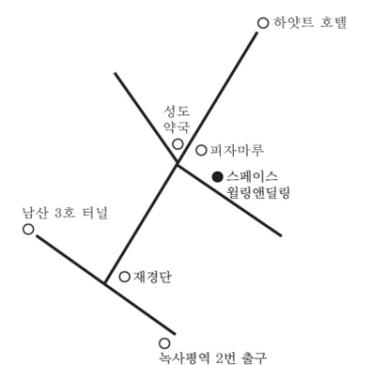
추미림 작가가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린 <가면의 고백>에 참여했습니다. 전시 기간은 07.10~09.14 까지. 그리고 갤러리 0914에서 하상옥, 은희경등 시인, 소설가와 함께 협업 전시가 열립니다. 전시는 09.12~11.30 까지.



박진우 작가가 홍콩 K11 Art Mall 에서 뮤지션 진지한과 Korean Design Exhibition 오프닝 퍼포먼스 및 작품설치를 합니다. (퍼포먼스는 09.4, 09.5 2회 하며, 작품설치기간은 09.4~10.12 까지 입니다.)

이윤호 작가가 효창공원에 '우주만물'을 개업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2-501 1층 웹사이트: cosmoswholesale.tumblr.com 영업시간 금~일 14~20시

오시는 길



주소

140-857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2동 225-67 B1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김인선, 박윤삼, 김지원, 한황수

발행일: 2014년 09월 01일